

제 목 : FRIENDS -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작 가 : 갑빠오, 강목, 김우진, 김한나, 변대용, 송형노, 윤병운, 제제, 조현수

날 짜 : 2022.4.5(화) - 5.15(일)

문 의 : 양유진 E-mail : carinofficial@naver.com

Tel : 051-747-930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길 65번길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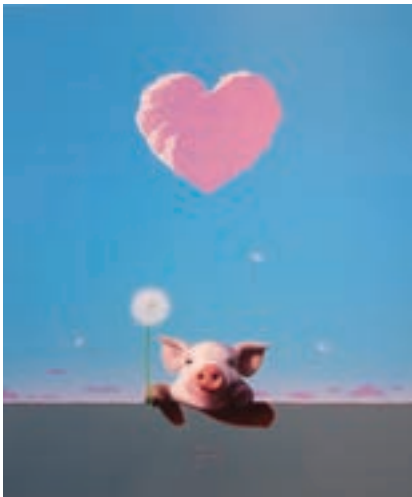
FRIENDS

CARIN은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누리며 감상할 수 있는 젊은 작가 9명의 『FRIENDS-나의 사랑하는 친구들』展을 오픈한다. 가족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가족과 친구에 대한 소중함을 종종 잊고 지내곤 한다. 가까이 있고 늘 같은 곳에 있어 소중함을 잊고 지내곤 하지만 실은 그래서 더 소중하고 고마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이다. 이번 작품을 통해 주변 가족과 친구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감사함을 전달하는 전시가 되었으면 한다.

송형노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작가의 가족이야기 넓게는 관객과 그들 그리고 현대인의 이야기로 더 깊숙한 영적인 이야기로 확장이 된다. 돼지는 목뼈의 구조상 하늘을 볼 수 없다. 돼지의 골격구조상 벽에 기대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늘 담벼락에 기대어 담너머로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그리는 장면의 올리비아가 탄생하였다. 인공적인 석벽, 동식물, 인형, 사진, 사물 등을 그려내며 작가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야기는 현실을 벗어난 비현실적 초현실주의를 추구하는 듯하지만 그 근원에는 꿈을 향해 달리고 날고 싶은 작가의 꿈과 작가의 주변 인물, 중심에는 현실 속 가족과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

변대용 작가는 친근하고 귀여운 북극곰 형상의 동화같은 작품들을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하얀 털에 까만 코를 가진 사랑스럽고 친근한 북극곰과 아이스크림이 함께 등장하는 일련의 연작은 사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시작된 작품이다. 작가는 지구온난화로 파괴되어 가는 자연을 '녹아 내리는 아이스크림'과 '그것을 찾아 헤매는 북극곰'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찾아 헤매는 북극곰을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꿈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스스로를 위한 위로와 위안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또한 여행을 떠나는 북극곰들을 보며 여행의 진정한 의미나 휴식, 힐링을 떠올려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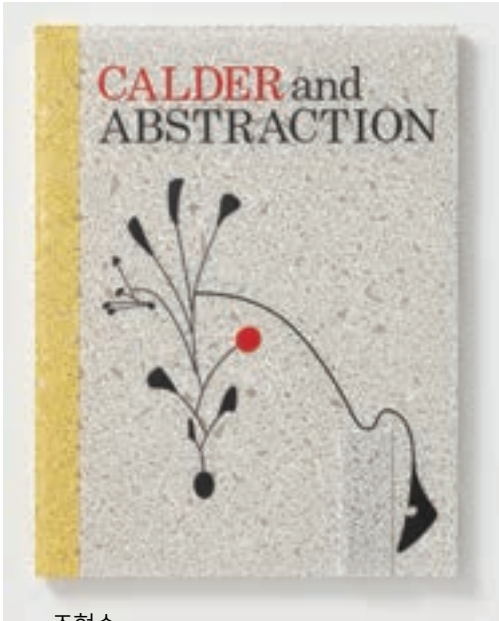
조현수 작가의 작품 표면들은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드로잉을 모티브로 시작하여 선들의 조합을 이루어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려진 조각'이라고 표현한다. 의도하에 제작된 형틀에 액체의 강화플라스틱을 뿌림으로써 마치 물감 자국으로 이루어진 조각처럼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낸다. 작업의 과정 속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책 속 기록들이 쌓여 여러 장의 종이들로 책을 만들어나가듯 작품의 표면이 여러 겹의 선들이 쌓여 형태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송형노



변대용



조현수



김한나



강목

김한나에게 토끼는 단순한 작업의 소재가 아닌 절친한 친구이자 작가의 내면을 지탱해주는 분신과도 같은 존재이다. 작가의 작업은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며 함께 지내는 김한나 자신과 토끼에 대한 기록이다. 작가의 이전 작업들은 토끼와의 첫 만남과 의도치 않은 헤어짐 이후에 서로를 그리워하며 찾아 헤매는 여정을 그린 것이었다. 짧은 첫 만남 이후 둘은 원인 모를 강렬함을 느끼며 서로를 갈구하며 찾아 다닌다.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위장술을 사용해 숨기도 하는 등 여러 고비의 여정들을 거친 후 둘은 끝내 재회하게 된다. 어렵게 만난 한나와 토끼는 빠꾸기 시계 안에 둘만의 평온한 보금자리를 만들면서 이야기는 끝이 난다. 한나와 토끼는 불안정하기에 서로를 갈구하며 둘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는 관계이다. 작가는 한나의 시점과 토끼의 시점 두 가지를 동시에 드러내어 관람객들에게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감 또는 서로가 함께 일 때의 안정감에 공감하게 만든다.

강목작가의 작업은 오늘을 담은 초상이다. 관계하는 모든것을 담아내고 그것은 어제가 되려하고 또 내일은 오늘이 되려하기에 영원속의 초상이 될 수 있다. 인간으로서 자라나면서부터 지닌 본연의 성품 그 자체를 포착하고 싶어하며, 이를 위해 곳곳에서 피어나는 의문을 조형적 언어로 표현한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며 자연스레 존재하는 무의식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시선을 통해 존재자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한다

갑빠오 작가는 지극히 사적이고 일상적인 것에서 영감을 얻는다. 늘상 그의 시선은 누군가에게 그저 종종 흘러가고 보잘것없는 사물과 감정으로 치부되는 것으로 향한다. 그렇기에 갑빠오의 작품세계에 있어 감정을 느끼는 주체인 "사람"은 그에게 있어 중요한 테마로 여겨진다. 사람들이 매일같이 겪는 일상과 그에 기반한 다채로운 감정이 그의 손을 빌어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는 셈. 작품의 장르에도 쉽사리 구애받지 않는다.

개개인의 사람이 온전히 "나"로 존재할수 있는 자유와 치유의 방이라 정의내린 갑빠오 작가는 우리가 모두 "별것아니지만, 도움이되는 것들" 덕분에 살아갈수 있음을 다시금 느낄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한다.

김우진작가는 어릴 적 꿈인 동물 사육사를 오브제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플라스틱과 스테인레스라는 오브제를 통해 사육하고 싶었던 동물들을 재현하였다. 동물을 표현함에 있어 외형적 유사함보단 정서적 재현에 집중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어린 시절 꿈을 해소하고 실현하고자 한다. 작가는 플라스틱 오브제가 가지고 있는 일부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화학적 연구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플라스틱 오브제와 같은 모양 또는 비슷한 형태의 스테인레스 유닛을 통해 그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갑빠오



김우진



제제

있는 일부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화학적 연구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플라스틱 오브제와 같은 모양 또는 비슷한 형태의 스테인레스 유닛을 통해 그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제제작가 작업의 영감을 받은 것은 어린 조카를 보면서였다. 어린아이가 어른의 세계를 동경하듯 시간이 흘러 무의식 깊은 기억 속으로 사라져버린 순수한 세계를 접한 어른은 낯설과 경이를 느끼기도 한다. 백지처럼 편견 없는 상태에서 세상의 것들을 유연하게 흡수하고, 때로 예측불허의 반응을 보이는 어린아이를 통해 받는 감동은 어느 예술 작품이 주는 것보다 클 수 있다. 제제의 조각은 한 눈에 귀여운 느낌을 전하지만 혈색 없이 굳게 다문 입술, 무표정한 얼굴에 발랄한 동세를 보여주지 않는다. 일반적인 아이의 캐릭터가 큰 눈으로 감정을 드러내는데 반해 눈이 크게 묘사되어 있지 않고, 오드 아이를 가진 인물이 대다수이다. 피부는 주로 블랙이나 화이트로 표현하고, 옷이나 머리카락은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는데, 표면을 굵어낸 텍스처를 그대로 남겨 두기도 한다. 컬러풀하게 도색되어있는 단단한 표면 위로 그려진 낙서와 드로잉은 시대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내면에 부유하는 가치충돌을 즉흥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강한 어조의 단어를 종종 사용하기도 하는데, 작가가 접한 문화적 소스에서 다국적 언어조각들을 단발적으로 기록하고 있기에 조합하여 해석하기는 다소 난해하다. 그는 일관된 메시지를 담기보다 변화하고 있는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를 작품에 담아낸다.

윤병운 작가의 차가운 겨울 풍경을 담고 있는 작품을 보면 왠지 따스하고 평온한 느낌이 든다. 작가는 매년 겨울이 되면 눈이 오는 풍경을 담고 싶다는 생각에 작품을 시작했다고 한다. 작품은 우리가 늘 상 겨울이 되면 볼 수 있는 설경이지만 그림 안의 세상은 작가의 상상이 그려낸 눈 내리는 풍경이다. 그래서 익숙하기도 하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작가는 스스로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품 안에서 풍경이 되는 소재들 즉, 집의 크기, 집을 구성하는 붉은 벽돌의 사이즈, 그 집의 창의 크기, 배경이 되는 나무의 높이 등을 마치 현실처럼 자세하게 상상하여 그려넣는다. 그리고 하얀 눈으로 풍경을 다시 채워 넣어 온전히 메울 수 없는 여백을 존재하게 한다. 이 눈 오는 풍경은 기억에 의존하여 어디선가 본 것 같지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작품이 된다.



윤병운